

宗 教 論

(계속)

朴 亨 龍

五、宗教는 價値判斷인가

價値判斷이란 윈들랜드(Windeland)等 西南獨逸價値哲學派의 基礎原理이나 宗教를 價値判斷이라고 보는 解는 特히 헤켈·홀름(Herhan Lotze 1817-1881)과 알브레히트·리츨(Albrecht Ritschl. 1822-1889)가 解說에 依한 것이다. 別例의 宗教觀은 形而上學의 基礎한 것이었다. 그는 價値들의 世界는 形式들의 世界를 理解하는 關鍵이라고 主張하였다. 리츨은 消極的으로 反形而上學的 反神秘的 反敎義的이었으나 積極的으로 價値判斷의 思想을 發表하여 宗教敎說의 關鍵을 삼았다.

리츨은 知識論을 解說함에 있어서 理論的 知識과 宗教的 사이에 懸隔한 區別을 세웠다. 心의 客觀的으로 授與된 바의 諸印象의 부뒤알베 그 모든 印象들을 注意깊이 對하고 또한 因果的 觀念을 갖이고 그것들을 自然體系의 部分을 노보아 互相聯絡시키는 것은 理論的 知識이오 그 印象들을 快樂과 苦痛의 感受者에게 示現되는 바의 價値에 依하여 그 印象들을 評價하는 것은 宗教的 知識이다. 그러면 宗教的 知識은 그 樣式이 價値判斷이다. 價値判斷은 理論的 要素의 色彩를 全然 갖이지 않고 價値만을 表現하는 判斷인바 우리의 審美的 道德的 判斷이 다 이 種類의 判

斷이거나 宗教的 判斷은 더욱 그렇 것이다. 우리가 探求하는 『宗教的 知識은 價値의 獨立한 境界에서 發生한다』 宗教的 知識은 事物을 그 客觀的 又是 科學的 關係에서나 哲學的 思辯의 對象으로는 學論하지 않고 다만 宗教的目的을 得達함에 있어서 그것이 人間의 精神作用을 幫助하거나 或은 防禦하는 바로 더부러 關係한 것이다. 宗教的 知識을 提示하는 樣式은 理論的 機能의 樣式과 달나서 兩者間에 혼이 衝突이 있거나 兩者의 境界는 神聖不可侵格의 分離狀態가 保全되어야 할 것이니 이 兩者의 境界의 區別이 確然이 記憶되는 限에는 衝突을 보지 않을 것이다. 心은 宗教的 提示의 對象들을 理論的으로 關係할 것이 아니라 그 對象들이 心自體에 對하여 들어나는 價値方面만을 固執하여 그것들을 提示함에 있어서 그 價値를 表現하기 좋은 樣式으로 할 것이고 他方法으로는 하지 말 것이라 하고 하였다.

리츨이 價値判斷을 宗教知識의 方法으로 使用한 結果로는 基督教神學全部에 大대의 破壞가 오게 되었다. 리츨은 칸트와 같이 神存在의 道德的 證明을 是認하였으나 理論的 證明들은 排斥하였다. 神觀念은 人의 精神이 自體의 價値를 判斷함에 서 起因하는 것이오 理論的 證明의 產物이 아니다. (靈的存在·人格의 人間은 全自然世界보다 高等한

價値를 갖엇노라하고 主張할밖에 없다. 그는 當然이 世界를統治할것이다. 그러나 그는 肉體便으로는 自然의 한部分이요 또한따라서 自己가 自己의 靈의目的을 達成할에 있어서 自然狀態로부러 不絶한防害와 反抗과의 侵害를 느끼지않이치못하게되였다. 그리하여 人으로써야 自己의將來의運命이 되며질것으로 늦겨지는바를 實現케 하려는 이矛盾의解決을 찾아내려는 그의存在의 根本問題에 부닥이게하는것이다. 그러나 이런解決은 人類의靈的生活의目的으로 世界는 創造하신바의 神意志를 假想할에사만 發見되다는것이다. 故로 神觀念은 直觀의結果도 많이요 合理的推論의結果도 많이라 靈魂의世界上에 그地位를 鞏固케하기爲하야 世界上에 靈的自由 或 『主宰權』을 得達하기爲하야 스스로만드는 『假定』으로부러 이르나는것이다) 우리는 神의本性에對하야 干與할것이없고 오직 그의動作과出現에 干與할것이라하고 神의屬性은形而上學의解釋을避하고 宗教의解釋만을 取할것이라하야 그永遠 全能 遍在 義等の 聖經의意味를排除하고 『神의愛라』고한 요한의 神에對한表現에 基督敎神觀全部를 總括하였다. 基督論에 있어서 릿츨과 그學派는 實體論의三位一體 永遠聖子の 道成人身 二性聯合같은 敎會在來의 基督論을 全部棄却하였다. 이것은 形而上學的이요 煩瑣哲學的이요 宗教의目的이 無價値하며 信仰의補助보다도 防害를 주는것이라하였다. 그리스도의神格을 肯定하려면 決코 科學的提議로써하지말고 價値判斷으로하지말고 即 그리스도의 神王國創立과 完全한 靈的宗教의 建設

等の 全事業을 考察할때에는 그에게神格이라든 高等한 宗教의斷定을 돌릴만한것이다. 昇貴하신 그리스도의 榮化狀態는 우리의眼界로부터 全然숨어있으니 이것에 어 떤 宗教의價値를주려면 우리는 그의歷史의人格의 死後感化力이 即是라는 言辭로써하지말것이라고하였다. 異跡이란 自然에 어떤變動을 이트키는것이아니라 神臨在의 即刻形象 우리에게주는 事變뿐이다(價値判斷) 또 어떤 貌樣으로 異跡을 믿을리이면 異跡은 그리스도의獨特하고 神靈한人格을인는 信仰의結果로알고 믿을것이라고하였다. 그리스도의復活은 그리스도의 昇貴라는 意味에서 肯定하더라도 그것은 歷史的證據에依함이아니요 한가지의 『信仰的思想』으로 그리고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끼쳐주신 靈的偉大와 善的印象으로부터나온 推斷으로되일것뿐이라고하였다. 릿츨은 宗教는 人對神의關係가 아니라 人對人及世界의關係라하고 人이世界우에 主宰權(信仰의行使로 世界의苦惡이라도 靈的進步의方便으로 自己의 靈的自由를 證據할機會로轉作함)을얻어 靈的自由를 行使함인 永生이라고하였다. 릿츨은 來世를 否定하지아니하였으나 그것은 우리에게 實際의利害關係가없고 完全의 우리의 知識越便에있는가답에 論議함이 虛事라 하야 그問題에 接觸하지않고 興味를 全然 現實生活에 集中하였다. 復活과 再臨같은 重大한問題들도 接觸한것 이없다. 릿츨은 價値判斷을 宗教的知識에 應用한結果 宗教的眞理大部分을 排除 或修正하고 神存在의 單純한信念과 安心立命의 精神生活을 殘存하였음이如此하다.

우리는 宗教에서의 價値判斷의 必要와 存在를 否認하지 않는다. 第一에 宗教는 強한 實際的動機에 依하여 活氣를 갖게 됨이 事實이다. 그러므로 그 表現의 樣式이 溫暖하고 生氣가 있고 感激的이며 比喩的 繪畫의 描寫를 用이 使用하거나 冷靜하고 文字的이오 精確한 客觀的關係만을 갖이고 事物을 取扱하는 科學的判斷의 境遇에서와 같지 않다. 第二에 高等한 種類의 諸宗教的判斷은 道德的決意의 成分을 包含하고 있다. 神의 意志를 遵行코자 하는 者가 敎理를 아는 者다. 이 점에서 도 宗教는 純全의 理論的인 認識과는 다른 것이다. 基督敎는 그 宗教的對像들이 最高한 道德的 靈的性質을 包含시키는데 故로 그것들을 理解하기 爲하여서는 宗教經驗者에게 適當한 器官이 要求되는 것이오 그가 그것들에 나서는 判斷은 性質上 價値의 判斷이 될 것이다. 오직 音樂에 訓練이 있는 귀라야만 能이 音樂을 評價할 수 있고 藝術家의 눈이라야 能이 一幅의 繪畫을 評價할 수 있음과 같이 오직 純潔 仁愛 恩惠를爲한 感情이라야 能이 福音에 提示되나 그리스도의 畫像의 可愛성과 嚴莊美를 評價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내가 能이 救主의 超越한 道德的 靈的美를 肯定하는 것은 價値의 判斷이다.

價値判斷이 宗教에 存在하는 事實이지만은 價値의 主眼한 바 이 宗教的知識이 價値判斷으로만 構成된다는 說은 誤謬됨이 甚하다. 價値의 主眼은 宗教的知識은 오직 「價値의 獨立한 判斷」만으로 構成한다고 말한 것 그리고 모든 宗教의 信念들을 價値判斷에 依하여 排除 或修正한 것은 大錯됨을 免치 못한다. 純價値判斷을 通過하여 나온 바의 敎

理들은 얼마나 客觀的實在오 얼마나 主觀的構成인지 明瞭치 않다. 嚴密이 말하면 우리는 이것을 「知識」이라고稱할 수 없는 것은 知識이란 心이 그 判斷과 推論에 依支하는 客觀的 既知件을 包含하는 때문이다. 價値學徒中의 트렐취 등이 이 理論은 우리의 主觀主義에 引導하지 않느냐고 非難한 것은 正當하다. 그 學徒中에 一人 벤던(Bender)이 諸宗教的 觀念을 사람의 主觀的 表現 又是 靈的 生活의 目的을 爲한 幻象의 產物뿐이라고 하여 此를 消散하여 버렸다. 아나 宗教的 知識은 價値判斷만으로 構成되는 것이 아니라 科學的 理論的 判斷에 重要한 根據을 갖는 것이다. 어떤 宗教的 知識에 對하여 그것이 참으로 그러하리라고 認定되는 境遇(依賴할 만한 源泉에서 引出된 때에 그럴 수 있다)에서 그의 判斷은 다만 「價値判斷」이 아니라 「眞理的 判斷」—實在의 判斷인 것이다. 또 價値判斷이라든 것도 純全하고 單一한 價値判斷이란 없고 먼저 實在한 對象에 關係하여 갖이고 暗暗裡에 或은 顯著의 前記對象에 對한 關係와 함께 價値判斷의 過程에 드러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價値判斷은 空中에 달린 것이 아니라 實在한 對象에 關係된 것이다. 내가 美花를 보고 거기에 審美的 判斷을 행한다면 그 行爲에서 나는 그 美의 價値判斷을 나리는 同時에 그 美의 存在를 肯定하게 되나니 이는 곧 知覺으로 授與된 知識이오 萬一 내가 한 無趣味한 行動을 말한다면 그것은 그 行動의 價値判斷을 말하는 同時에 그 行動의 實在함을 肯定함이다. 여기서 兩條의 事實이 드러나니 (1) 價値判斷과 存在의 判斷 사이에 反對가 없다. 참으로 前者가

後者를 豫想하지 아니치 못하게 된다。(2)同一한論題에使用한 價値判斷과 存在의科學的判斷사이의 敵氣가 없고 兩者가 同一한知識의行爲에 不可分의成分들이여서 互相補充하는 것이다。兩者를모다 計入하지 않으면 果의知識과 어떤 行動의知識은 不完全할 것이다。一方의 價値가 참價値이고(虛構도나 想像으로 賦與되지 않은) 他方에描寫(科學의 이나 其他)가 참描寫이면 兩者間에 決코撞着이 있을 수 없다。아니 完全한 理論的見解는 그自體에 價値判斷을 包含한것으로 볼수 있다。簡單이 말하면 宗教的知識과 理論的知識의境界은 서로 透入하며 서로 重疊하여 嚴密한分離는 不可能하다。基督敎에다가 이原理를 應用한다면 價値判斷은 神과 그리스도에關한 우리의知識全部를 다 說明하지 못할 것이며 그論題들의 理論的判斷을 또 한 拒否하지 못할 것이다。우리가 神에對하여 宗教的價値를 論하기前의 몬지神이 계시는 것과 神의本性及行爲가 어떻하다는 것을 알어볼 여덟方面이 있어야 된다。同樣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歷史的으로 알아야만 그안에 있는 宗教的價値를 認識할수 있는 것이다。神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갖이시는 宗教的價値는 神과 그리스도가 『무인』의시대(그性質)고 表明하듯데 있듯 것이다。(Johnson: op. cit.; 著: op. cit.)

六、宗教는 實踐主義인가

現代哲學의 重要한 一特性은 人格에의 強調이다。이 強調의原因은 純全의 思辯的인 思考에보다도 道德的 宗教的意識에있는 것이다。人格은 一般的哲學 特히 宗教哲

學의 新出發點이 되었다。할만·롤체와 프롤프·오이겐 (A Feuckel, 1846-) 같은 思想家들과 實踐主義(Pragmatism)라는 思想運動이 모두 人格에서 出發하며 人格에 強調하여 온 것이다。

實踐主義는 아직 一種의 完成된 哲學體系라기보다도 한가지의 研究方法이라고 해야 妥當한 것이다。이主義는 眞理를研究함에 人格의經驗으로부터 出發하며 各種信念의 重要性이 그것들의 實際的效果에 正比例한다고 主張한다。諸信念의 眞實性은 그것들이 行動의範式으로써 有効이 工作함에依하여 證明되는 것이다。그리고 그러러範式은 그應用되는分野의 變動에따라 修正을받는 것이다。우리는 過去時代의 知識의積堆로부터 우리가 能히 實用할수 있는것만을 選出한다。眞理란것은 生存의 一般法則의 事件인바 生存은 狹意의論理에依치않고 生의 全域에의 適應性에 달린것이라고 한다。

實踐主義的方法과 觀點은 必然的으로 反宗教的인안이나 眞理가 恒常造成되고있다는 그敎義는 敎理的標準의 固定性을받는 信念과 衝突하려는 것이다。實踐主義는 世界가 아직도 造成되는 途中에있으며 眞正한終末을 捕捉하려는 努力을 包含한다고 본다。實踐主義가 갖이신 神의意義는 通常信者들의 神觀과 크게 다른점이있다。그리고 靈益實在은 發見되는 或은 造成되는 무엇이므로 그規範들은 多樣程度의 適應性들이며 따라서 不絶히變動과 修正에 屈服한다고 믿는다。

오이겐氏는 그名著 『宗教의眞理』에서 이렇게말하였다

『歷史的宗教들은 眞理自體가 아니라 『眞理의外觀(appear-ance)이며 眞理에로가는 途路이다...』』『歷史的宗教들은 그것들의 實地事實을로만은 滿足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들은 다른 모든것보다 優越한眞理 卽 最終的眞理로 自薦한다。 그런데 아무것도 비록 그것들의 歷史上最大한 成果라고 하더라도 이같은眞理의證據를 供給하지 못한 다。 왜 그러나 하면 이같은證據는 時間을 超越하는 立場에依하여서 또는 精神生活的 性質及其實在과의 根本的關係에 依하여서만 發見될것임으로되이다。 이와같이 內部的 直接的生活의 每件的 歷史的 成果와 對立하며 그것을 測量하며 檢試할수밖에 없다。事實上 모든時間에 特別의 歷史的宗教가 確實한 主權의 狀態에 있을때의 傳統과 直接的生活의間에 內面的緊張狀態가 存在하고 提出된材料의同化는 恒常 再形成이며 調節이다。 그러나 이調節이 成就되기 過히 困難치아니한때에는 何等裂目的 感覺되지아니하고 結局 歷史的宗教는 眞理를全部 所有한것같이 되일수가있었다。 마는 普遍的 生活的 重要한變化가 그 緊張狀態를 增大한때에 사람들은 特別히 歷史的宗教와 自己들의 諸觀念及努力과의 距離를 感覺하게되는 그리고 結局 이같은 歷史的宗教와의關係가 優勢的으로 批評의이며 消極的이 되게되는 一定한地點에 到達하였다。 이렇게 發生된 差異는 二重일수있다。 生活의 歷史的宗教의 內容보다 앞서 成長한結果 內面的性質의 大革命이 不可避하게되거나 或은 現存形의 모든變化가 그實質의 多部分을 接觸하지않고 버려두어서 外

形的 諸變動의 內部的核心과 能히 關聯을 갖게되고 그리하여 모든 擾亂中의 歷史的宗教의 繼續이 能히保在되리라할것이다。 果然 外形의 變化는 그實質의 보다 더 純全하고 보다 더 有力한 效果를내도록 助力할수도 있어서 外觀上 爆發과 破滅은 畢竟 그 實質의發展과 深刻化인것을 自證할수있는것이다』『이것이 모든것은 基督教와 關聯하여 應用될것이다。 基督教는 文化와 人間生活의 拒否할수없는 變化에依하여 얼마나 깊이 影響을 받는가。 基督教은 이같은 文化와 生活에對抗하여 自體를 勝利的으로 維持할能力이 있는가。 이같은斷言은 새로운 諸活動의길에 무엇을 要求하는가라는 問題를 무리 보는것이 必要하다』(Rudolf Eucken: The Truth of Religion 1908, English edition, 1911, pp. 536-588)』

實踐主義는 宗教를 一方에 치우친 智能主義와 絕對主義의管轄로부터 救出함의 奉仕하였다고 認定된다。 果然 宗教는 理論的辯解로 滿足할것치아니라 또한 實際的經驗으로 그眞理를 闡明할것이다。 그러나 眞理의固定性을 否認하는 實踐主義의 根本原理는 사람을 宗教的眞理探求의正路로부터 誘引하여 懷疑와 當惑의 五里霧中에 迷路를 取케한다。 그리하여 現今의 諸傾向을 考察하여보면 實踐主義는 唯物論과 不可知論같은 反宗教的思想體系들과 聯合하려는 氣勢도 보이고 있는 것이다。 上述 오리게츠의말에 外形의變化는 그實質의 더욱純全하고 有力한效果를 내게하며 外觀上爆發과 破滅은 그實質의發展과 深刻化를 意味한다구한것은 事實을말하는지

疑問이다。宗教的眞理의 固定性을 否認함으로써 出發하는 懷疑主義運動은 흔히 過激에 墮려 宗教의 全的否認의 向進하는 것이다。十八世紀 英國에서 聖經의 合理的說明을 目的으로 하고 이러한 自然神敎運動이 조공後에 聖經啓示의 權威을 全적으로 否認하고 佛國에 건너지가 唯物論化한 歷史的事實은 이 點에 있어서 良好한 參考材料가 안인간다。

젠스는 宣言하기를 實踐主義는 그후에 있는 몇가지矛盾을指摘하여서는 것으로 反駁될것이 아니라 그것을 理解하고 接受하기를 배어는 唯一의 方法은 『心情의 單純變化』即『絶對論의 希望들과의 絶交』를 通하여 徹底히 『歸納法의 마음』의 人物이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James: Mind, 1905, p. 191) 『茲의 實踐主義의 核心이 있다。即 그것은 神만 아니라 모든 觀念들과 名稱들中의 絶對性을 갖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을 알아보려는 希望을 全然 抛棄하였다。그것은 懷疑의 特性을 가진 마음의 産物이며 이 때문에 最後의 手段으로서 그所謂 究竟의 이오 爭論을 不容할만한 事實들의 執着하느라고 한다』(Herman Bavinek: The Philosophy of Revelation, P. 54) 그러하여 그結果는 上述한바와 같이 宗教의 建設이 아니라 破壞인즉 그主義自體의 原理에 依하여 判斷할때 그것은 惡果를 産出하는 惡果樹임이 自證될 것이다。

實驗 結果에 訴하여 宗教的眞理의 證明을 찾는 實踐主義의 研究方法는 그自體에서 善美치안는 것이 아니라 結實의 善惡으로써 果樹의 善惡을 判斷하는 것은 古今에 通

行하는 一種의 研究方法이다。그러나 眞理의 探求方法은 어찌하여 다름것은 全然없다고 主張하는 것은 一種의 偏僻됨을 免치 못한다。觀念論者는 말하기를 『우리가 저 實在에 得達할수 있는 唯一의 길은 自意識이다』라고 하지 않는가? 人의 心은 모든 知識의 基礎라。物質과 勢力의 世界인 客觀의 實在가 있으나 그것의 知識은 오직 人의 意識을 通하여서만 獲得되는 것이다。觀念論者의 主張이 完全無缺한 것은 아니나 思想을 知識의 關鍵으로 삼는 그方法은 尙부로 無視할수 없는 것이다。眞理가 어찌 實踐主義者의 獨占의 特權이겠는가? (Johnson: op.cit; Rudolf Eucken: The Truth of Religion 1908; Herman Bavinek: The Philosophy of Revelation, 1909)

上文에서 吾人은 近代에 提案된 宗教本質論 五六을 紹介하고 各者에게 若干한 批評을 加하였다。吾人은 그各論의 部分的으로 眞理를 包含함을 肯定하나 그어느一案이라도 全적으로 採擇할수 없었다。그러나 이제 宗教의 本質이 무엇이냐 하는 問題에 對한 吾人의 答案을 述함에 臨하여 吾人은 前記各論의 眞理되는 部分들을 綜合하여 參考에 供하기로 한다。宗教의 本質에 對한 吾人의 說明으로서 宗教의 根本的意義와 宗教의 本質的要素라고 兩條의 論議가 下文에 開陳될것인바 그論議는 直接間接으로 前記諸案의 示唆을 받음이 不少할 것이다。

七、宗教의 根本的意義

宗教의 本質을 알아보기爲하여 먼저 宗教의 根本的意義를 究明할 것이다。宗教란 무엇인가 무르든 對答하기어

하고 對答하면 一致하기 어려운것은 宗教의 定義이다. 宗教의 存在를 承認하고 宗教를 經驗하고 宗教를 宣布하되 一般的意味의 宗教에 對하여 簡單하고 妥當한 定義를 下함은 至難한 일이다. 이는 맥스·뮐러의 言辭와 같이 『宗教는 우리가 아는 世界만치 오래되어 縱斷하여야는 時代와 함께 無窮한 變遷과 多樣諸相은 圓滿한 宗教의 定義를 極히 困難한 것이라고 한다. 庶物崇拜 토템崇拜 佛教 基督敎를 다 抱擁할만한 宗教定義는 果然 困難할 것이다. 그러나 一定한 原理를 發見하지고 可及의 包含廣大한 宗教의 定義를 試圖함은 無理한 方法이 아닌 동시에 또한 効力이 없지 아니 할 것이다.

宗教의 意味의 最終的 解釋을 나림에 있어서 形而上學도 除外하지 말것이나 最重要한 것은 宗教의 心理學과 歷史를 基礎로 삼아 宗教의 實像을 發見하여 眞理(宗教의 眞意義)로 하여금 그 自光의 光明에 依하여 날아나게 함이다. 宗教의 心理學과 歷史는 宗教의 意識의 心理的 要素와 眞 그 動作하는 方式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故로 宗教의 定義는 이 心理的 要素와 眞 그것을 通하여 工作하는 本源的 (Genetic) 原理 或 動機들을 提示함으로써 本領을 삼을 것이다. 그렇기 하는 때에 可及의 圓滿한 宗教定義를 畢竟 發見할 수 있는 것이다.

로이바 (Leuba) 教授는 그의 『宗教의 心理的研究』 (A Psychological Study of Religion, 1919)에서 여러 著述家로부터 宗教의 定義 四十八種을 聚集하였다. 그多數한 定義를 三群에 分하고 各群의 代表的 定義를 例舉하면 켈스·달리

오 (James Martineau)가 영의기를 宗教는 『永生하는 神은 宇宙를 統治하며 人類와 道德의 關係를 維持하는 神靈 心과 意志를 信仰한 이라』(知) 『맥카길트 (Mcaggart)』는 영의기를 宗教는 『吾人自身들과 宇宙全體間의 調和 가 있다』는 確信의 依支하는 情操라』(情) 『프레이처 (Fraser)』는 영의기를 宗教는 『自然과 人生의 途程을 指導하며 管轄하는 줄로 믿는 超人間的 權力들의 慰宥 或 和解』(意) 이 三種의 宗教定義는 人性의 三機能인 知·情·意의 各一을 關說하는 것이다. 第一은 智力의 信念 或 意見 第二은 感情들의 體系 第三은 行爲의 方式을 措寫한다. 그러나 보다더 圓滿한 宗教의 定義는 智力的 感情的 決意的 三要素와 眞 그것을 通하여 工作하는 動機들을 包含하여 提示해야 할 것이다. 라벌·에칭·들너스 (Robert H. Thouless)가 神 或 神靈에 關한 信念을 宗教觀念의 其本 質을 構成한 것을 우리는 注目해야 만된다. 兩要因中의 一方이 欠缺되고도 오히려 宗教가 成立할 수 있다는 것은 到底의 想像치 못할 바이다. 이것은 宗教라는 名辭의 語源的 解釋에 가서 보더라도 참된 見解이다. 『宗教』 (Religion) 라는 文字는 『라틴』語根에서 發源하여 歐洲諸國語에 來入하였다. 即 라틴리어트 (Latinius 三世紀末 四世紀初의 戴蘭敎父 阿弗利加人)가 이 文字를 『릴리 가레』(religare) 라는 文字로부터 引出하여 基督敎의 紹介하였기 『릴』 가레』(religare) 結束 (to bind) 한다기 意味이다. 『Religion』의 語根이로 提示된 戴蘭語 三語가 로제이』(relegere, relinguere, re-elegere) (라한다)』. Religion』(라)』(religare) (Vulgare) 譯

宗教의 定義 四十八種을 聚集하였다. 그多數한 定義를 三群에 分하고 各群의 代表的 定義를 例舉하면 켈스·달리

氣分을 別로 重要視하지 아니하나 高等한 宗教는 『하나님은 神의 신故로 禮拜하는者가 神靈과眞理로 禮拜할지니라』요 四²⁴』한다. 그리하여 禮拜에는 神과 사람의 眞正한 交涉의 잇기를 要求하는 것이다. 또 禮拜의 行爲에는 感情作用의 主가 되지만은 高等한 宗教일수록 그것의 靈化를 힘쓰는 것이다. 感情의 亂暴한 發作은 高等한 靈의 生活에 危險을 携來하는 것이라 하여 感情의 平衡과 純潔을 保持하려는 것이다. (3) 道德. 人과 神間의 關係에 依하여 人對神의 義務가 發生한다는 思想도 諸宗教에 或은 더分明이 或은 덜分明이 表現된다. 道德은 宗教에 極히 密接하여 道德의 價値가 또한 宗教의 價値로 되는지라 道德은 宗教의 一部로 남아나 는 同時에 宗教는 道德의 試取에 依하여 判斷되는 것이다. 웨일즈(Waiz)와 타이틀(Tyler)같은 人類學者들은 米國人の 宗教는 道德에 아모關係도 없다고 斷言하였으나 그것은 是와非의 高等한 觀念을 道德의 標準으로 삼는 때에만 可能할 斷言이다. 아모의 墮落한 民族이라도 人의 行勳으로 인한 漠然한 責任感을 殘存하지 않은 者 없다. 아니 未開族들에게 往往 豫期以上으로 高等한 程度의 道德生活의 宗教의 信仰과 連結되어 있다는 報도가 우리 귀에 들리어 오는 것이다. 亞米利加洲에 『티아덴 덴 뿌어그』의 居民은 文化程度의 低劣함의 他 何未開種族이나 一樣이로되 最高實有가 存在하여 地上居住者들의 道德의 行爲를 重視한다고 믿는다 한다. 또 未開人

의 社會에 風俗는 社會的 福利를 爲하며 人員들의 意志를 拘束하는 規律로서 道德을 意味하는 것이다. 風俗에 不服하는 것이 鬼神들을 震怒케 하여 犯人에게 神秘的 又是 呪術의 苦楚를 내리는 줄로 믿는다고 한다. 國家의 宗教는 道德과의 連結이 더욱 密接하여 互相透徹하며 國家安寧에 共通한 要因들로서 作用한다. 國家生活의 價値들이 亦是 宗教의 價値이며 愛國의 一種의 敝處이다. 近代文明의 傾向에 따라 宗教가 國家의 所有가 되기를 中止하고 다시는 公民道德의 特殊型形의 守護者가 되지 못하는事實은 宗教와 道德의 關係가 親密치 못하다는 印象을 어떤 사람들에게 주게 되었다. 그뿐 아니라 近代의 批判的方法和 懷疑의 詰難은 宗教의 權威를 減少하고 道德에게 獨立熱을 鼓吹한다. 宗教의 諸觀念과 假定은 疑問되며 未確實할지라도 道德은 自力이 裕足하여 堅固이 된다고 한다. 近年에 來 道德協會(Ethical Societies)들이 勃興하여 宗教의 信條없이 道德의 社會的 敎訓을 배울고 있다. 그들은 道德을 純全한 社會的 科學이라 하며 功利的 倫理觀과 世俗的 道德을 科學的 進化論의 言辭로서 叙述하고 있다. 마는 이 理論에 向한 不可抗의 反對는 무엇이냐 하면 享樂價値(Pleasure-value)나 生命保守의(Life-conservation) 觀念을 通한 道德的 責任의 說明은 道德生活의 實際生活에 適合하지 않는다고 할이다. 이 反對는 歷史的 宗教에 向한 同情으로 先入見을 갖지 아니하는 者들도 多數인이 늦기는 바

다. 善의觀念과 策略主義는 서로 提擧하기를 拒絶한다. 本分의概念이 社會內에 發達할지라도 그充分한 範圍와 意味는 社會에依하여 說明되지 않는다. 熟考하여 보면 『當爲(ought)』라는 말에는 어떤社會의 安寧을爲하는 方便의觀念에 包含된바보다 더큰 무언이 드러있다. 왜 그러냐하면 그本分을 感하는個人은 社會의福利를爲한方便보다 더한存在며 어떤意味에서는 社會自體가 人格의生活의 發展에 方便이됨으로써이다. 要컨대 善의根源은 人間의道德의本性을 經由하여 超越的權力에 溯上될것이오 然後에야 道德的價値들의 堅實성과 永續性이 保障된다. 善의根源이신 超越的權力과의 關係를通하여서만 道德的理想的의完成이 期待될것이다. 이見地에서보면 道德生活은 宗教生活의 現實的方面으로서 그堅實성과 永續性을 宗教에서 發見한다. 道德的義務가 또한 宗教的義務요 宗教的奉仕에 또한 道德的方面이 있는것이다. 그러므로 道德의 宗教의 本質的特性임으로 결코 分離키 不能한것이다. (4) 罪意識과 救援의希望. 人和神間에 무언이 誤錯되었다는感想 卽 罪惡感은 모든宗教에 共同되어 있다. 同時에 罪惡 又は 그結果로부터의 救出을渴望하는表情도 到處에 發見된다. 이는 吾人의熟視하는 多樣的 異教習俗에 顯著이 드러나거니와 特別이 各其 崇拜하는 神에게 獻祭하여 和解 或 慰宥를圖謀함에 分明이 表現된다. 多數의境過에는 回回教와같이 神을 慰宥하기不

能하다는 經典의宣言이 있는時에도 印度教와같이 如此한儀式이 上智에達한者에게는 無價値하다는 頑固한理論이 있는時에도 祭祀가 그地位를 維持하고있음을보면 더욱 意味深長하다. 潔淨浴이 其의到處에施行됨도 罪意識과 救援의熱望의 普遍的임을 指示한다. 어떤 宗教들은 苦惡의存在를 認定하고 救援의方法으로서 一定한儀式을 行한外에 苦行難行의 生活노써 그것을 克服코치한다. 『異教들』人性의 諸事實에對한 多數의證據者들이며 그 모든異教은 罪의意識과 最高實有로부터 和解의必要에對한 證據者들이다. 물족의火焰에나 異教神堂의 深抗에나 鰐魚를 먹이기爲하여 戔지스江에 投入된 嬰兒마다 苦行이나 鞭打나 身體上屈辱마다 犠牲의血노커 赤染한 祭壇마다 罪意識의 卓出한 告白이다. 異教들은 人間의 靈이 그宗教的確信을 表現하여 吾人의發言한바「우가 하나님앞에서 의로우나」(욘二五4) 悠久한問題를 解答하려는 強大한努力이다(David S. Clark: A Syllabus of Systematic Theology, p. 175). 罪意識과 救援의熱望이 宗教의本質的인 一部이다. (5) 來世信念. 모든宗教는 一般的으로 死後世界가있고 賞善罰惡이 거기서 實現된다고認定한다. 來世觀의詳細는 宗教를따라 不同하나 其存在를 認定하기까지하였으나 그러나 人類의宗教的性向은 將來 賞罰의 實在性을 主張하는同時에 佛敎에도 이 否定에 一致하지않는 要素들이 많이 混雜하게되었다. 卽 該宗

教는 人間의 宗教的性向에게 驅使한바되어 自然神論或은 有神論의 要素들을 自體로부터 發展시켰는지 或은 外界로부터 輸入하였는지 그大乘派에서 佛陀가 神化하고 複雜한 來世觀을 갖기된것이다. 印度教는 그來世觀이 汎神哲學의 影響을받아 靈魂의 輪廻轉生을 經過하여 冥암에 吸收됨을 理想으로하나 그最古經典이 『리베다』에는 靈魂의 個性的永生을 믿는 信念이 明瞭이 表示되었다. 바벨론의 이스랄(Isral)의 說話와 이스두발(Istular) 길가미스(Gilgames)의 史詩 埃及의 死者의 書, 波斯的의 『아베스탄』(Avesta)經 希臘 荷馬의 『일리아드』와 『오디시』(Iliad and Odyssey)가 모두 確實한 來世信念을 表現하였다. 諸宗教의 最下級에있다는 庶物崇拜에도 人間의 靈이 生存한다는 信念이 드러있고 北米土人은 死後에 愉快한 狩獵地에 갈것을 믿는다구한다. 이는 創造主가 『사람의 마음』으로 영원한 世界를 사모하게 하시기 때문이다 (권311) 來世信念도 宗教의 本質을 構成하는것이 分明하다. (6) 實用性. 宗教는 現實을 떠나서 活動하는것이 아니라 現實에서 工作하는것이기 때문에 個人의 生活이나 社會의 狀態에 莫大한 感化를 끼친다. 個人의 昌盛과 國家의 興隆이 宗教의 感化에 依하는때 많다. 他語로하면 宗教는 實用性을 갖고 있는 것이다. 特히 宗教의 文化上地位에 對하여 一考察을行하면 前記提案의 無誤함을 알게 될 것이다. 宗教는 粗雜한 音調로나 精鍊한 言論으로나 人間社會

에 恒常臨在하여 人의 存在와 運命의 問題에 對한 解答을 發表하였다. 同時에 社會生活의 諸要因에 重要한 感化를 주어 改良이 있으며 進歩가 있게 하는 것이다. 現今 心理學者들과 社會學者들은 所謂 『作用的』 宗教觀을 懷抱하고 宗教를 縮小하여 社會文化向上에 資하는 一方便으로 보고 말려는 誤謬에 陷入한다. 그들은 宗教의 社會的 解釋에 奪魂되어 宗教의 內面的 精神과 運動을 無視하는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宗教가 社會的 能率을 助長하는 信念과 法令을 社會에 輸入하여 生存競爭에 生命保守를 爲한 努力에 貢獻하는바 莫大함을 認識함에 있어서 無誤한 것이다. 宗教가 가르치는 目標은 文化의 體系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멀리 永遠에 向하여 探求되는 것이지만 오히려 文化의 體系에 活力을 주어 重大한 指導的 役事를 하는 것이다. 文化에 對하여 宗教가 갖는 意味는 靈魂對肉體의 그것과 같다고 比喩할 수가 있다. 文化體係는 有機體오 宗教는 그全體에 意味와 指導를 주는 靈感的 精神이다. 그럼으로 歷史上에 어떤 時代나 어떤 地域의 文化를 舉論할 때에 흔히 그 文化의 靈感的 精神이 된 宗教의 名義를 加冠하여 某宗教의 文化라고 云云하게 되는 것이다. 이事實은 實用性을 宗教의 本質的인 一部로 指示하는 것이다.

(계속)